

경차 지고

저유가에 1~2월 판매량 급감
한국GM 스파크 ‘눈물의 세일’



기아차 ‘모닝’



한국GM ‘스파크’

국산 경차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아차 모닝과 한국GM 스파크의 위상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저유가와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중형차가 인기를 끌면서 이들 차량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7500대와 5000대 이상씩 팔리며 베스트셀링카 상위 10위에 들었던 모닝과 스파크의 인기가 울 들어 시들해지고 있다. 올해 1~2월 모닝의 판매량은 1만290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한국GM의 스파크는 8206대로 5.5% 줄었다.

그나마 모닝의 경우 판매량이 1월 5780대에서 2월에는 7127대로 늘었으나, 스파크는 이 기간 5228대에서 2978대로 반 토막이 났다. 특히 스파크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2015년형 모델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

다. 2015년형 모델에는 기존 스파크S에만 탑재된 ‘C-TECH 파워트레인’이 모든 모델에 적용돼 주행 성능과 정숙성은 개선됐지만, 차 값은 특별히 평균 70만원 비싸졌다. 경차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중 차세대 스파크 출시가 예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차 판매 부진은 경차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기아차의 2월 내수판매는 총 3만 4405대로, 이 가운데 경차인 모닝과 레이의 비중은 25%를 차지했다. 한국GM 역시 2월 내수 판매량 9163대 가운데 스파크 비중이 32%에 달했다. 기아차의 경우 해외 수출 등을 고려하면 큰 타격은 아니지만, 내수에 주로 의존하는 한국GM의 경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3월에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울

한해 장사를 망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만 벌써 수차례 판매 조건을 변경하며 ‘눈물의 세일’에 나서고 있다.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스파크를 살 경우 선수금 없이 차량 가격의 전액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쉐보레 브랜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소정의 계약금만으로 차량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일시불로 스파크를 살 경우 110만원의 특별 현금 할인도 제공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SUV와 중형차로 옮겨가고 있어 경차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체들은 영업과 마케팅 등에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로화 20% 하락에도 유럽산 차값은 요지부동



“환율 변동 반영하면 시장 혼란”

인기차 되레 올려...소비자 분통

국내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독일 자동차업체의 해지백 모델을 다음 차로 접적어놓고 몇 년 전부터 구입 시기를 저율절해온 회사원 J씨(35. 경기도)는 조만간 이 차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이 차를 사는 데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씨는 하지만 딜러사를 통해 차값을 알아보고는 분통을 터트렸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차값이 오히려 수십만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유로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유로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유럽산 차값은 요지부동이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원·유로 환율은 최근 1유로에 1200원대가 무너지는 등 1년 새 20% 가까이 떨어졌으나 국내 수입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의 공식 가격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로 울 들어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값을 100만~200만원 내렸으나 소비자들 많이 찾는 2000cc 미만의 차에 대해서는 부분 변경 모델이나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일부 인기 차종의 차값을 오히려 소폭 올렸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등 나머지 독일 업체 역시 본사의 방침이라며 연초 차값을 최대 2% 가량 일괄 인상한 뒤 환율 변동폭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환율이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가격에 환율 인하분이 반영되기 마련인 다른 소비재들과 달리 자동차 가격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지 소비자들은 선뜻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J씨는 “지금과 같은 환율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자동차와 같은 고가 상품의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에 대해 “차값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환율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면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해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환율을 비롯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장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환율만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BMW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출시 가격은 각 나라 시장 상황에 맞춰 정하는 것이지 환율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율에 따라 차값이 왔다갔다 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된다”고 강조했다.

수입차 업체의 이런 해명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국산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원·유로 환율이 내려가면 유럽산 차값이 싸져야 정상인데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독일 업체들은 유로 가치 하락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 차값을 직접적으로 내리는 대신 딜러 인센티브, 연구개발(R&D)비로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중형차 뜬다

1~2월 판매 작년비 10.6% 증가
자동차 시장 침체속 ‘나홀로 독주’



기아차 ‘K5’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중형차가 다시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형차는 전통적으로 중산층의 패밀리카로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수년 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대형차의 인기에 밀려 고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신차들이 쏟아지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늘어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는 모습이다.

최근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중형차는 올해 1~2월 두 달 동안 2만7282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다. 이 기간 승용차 전체 판매량은 10만

65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하며 침체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전체 차급에서 판매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중형차뿐이다. 소형차는 4364대가 팔리며 28.8% 감소했고, 준중형차도 2만2501대로 19% 감소하는 등 경형(-9.9%), 준대형(-18.7%), 대형(-6.8%) 차급 등에서 모두 큰 폭으로 판매가 줄었다.

이에 따라 중형차가 침체에 빠진 승용차 시장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형차의 부활은 현대차의 쏘나타와 르노삼성 SM5가 이끌고 있다. 쏘나

타는 1월 6907대, 2월 7306대가 팔리며 순항 중이다. 지난해 12월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터보 등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아차의 K5도 1~2월 총 5443대가 팔리며 12만 907대가 팔린 모닝에 이어 기아차 승용차 가운데 판매 2위를 지켰다. 르노삼성의 SM5도 이 기간 4651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급증했다. 올해 1월 출시한 3세대 SM5 노바가 큰 호응을 얻은 덕분이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배터리 충전·긴급 견인 가장 많이 이용

<30%> <22%>

출동 시간은 전국평균 27분 걸려

차량 운전자들은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29.8%)이었다. 이어 긴급 견인(22.1%), 타

이어 펌프 수리(14.2%), 비상 급유(11.3%), 타이어 교체(11.1%) 순으로 많이 이용했다.

출동에 걸리는 시간은 전국 평균 27분이었으며, 가장 빨리 출동하는 장소는 평균 22분이 걸린 거주지 근처였다. 시내(28분), 국도·지방도(33분), 고속도로(37분)가 그 뒤를 이었다.

도시·산간·해안지역은 출동시간이 41분으로 가장 느렸지만 만족도는 3.84점으로 가장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출동장소는 고속도로(3.31점)였다.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이유로는 가장 많은 34.6%가 차량운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평균 2만9263원을 특약보험료로 내지만, 추가 비용을 냈다는 응답도 23.4%에 달했다. 추가 금액은 평균 3만2833원이었다.

소비자원이 12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25종을 조사한 결과 16개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 제한 규정이 있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황사·미세먼지 에어컨 필터로 걸러주세요

Q)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요?

A)전문가의견황사와 미세먼지는 차량에도 좋지 않지만 운전자의 호흡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에어컨 필터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기버튼

을 누르면 외부공기가 차내로 들어오지만 에어컨 필터로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하면 내기버튼으로 외부공기를 차단해 주다가 환기가 필요할 때는 외기버튼을 눌러 외부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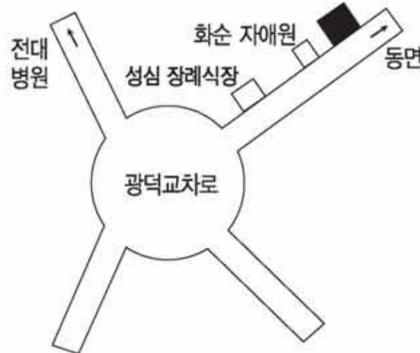
경매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기회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능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9000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